

설계경기 | Competition

인천 로봇랜드

Incheon Robotland Public Facilities

당선작 / 이승연^{정회원} · 김태명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 주성진^{정회원}(성학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천동 440-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변경입안예정)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지면적 37,701m²
건축면적 9,830.99m²
연면적 96,619.76m²
건폐율 26.08%
용적률 194.06%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25층(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로봇대학원)
발주처 (주)인천로봇랜드,
설계총괄 심재한, 최준섭
설계담당 한상민, 박동국, 이영희, 김성식, 김병진, 김인, 정승철, 함연식, 서동원, 김성산, 김사육

인간·기술·자연이 하나되는 공간

TRINITY-i

국제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천로봇랜드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표현하고, 산·학·연이 융합되는 글로벌 연구단지 구현을 위해 로봇연구소와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와 프로그램 조닝을 통해 「소통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또한 자연과 인간, 기술의 흐름이 대지 중심으로 흘러드는 「공존의 ROBOTOPIA」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세계적 로봇산업 HUB의 중심 LANDMARK TOWER

계획부지 중심에 위치한 로봇산업지원센터는 자연의 흐름과 로봇연구·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친환경 타워를 계획하여 국제적 로봇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로 걸어가는 로봇을 모티브로한 상징적 타워는 로봇산업의 메카로서 미래

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구현 하고, 진입광장에서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포디움 계획으로 관문의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층부에서의 정면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진입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여 건축물과 로봇 조형물이 융합된 경관을 연출, 로봇랜드로서의 상징적 보행경관을 연출하였다.

인천과 세계로 통하는 열린 연구시설

연구시설은 자연과 소통하는 열린공간 계획으로 연구원들간의 원활한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열린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계획 하였다. 로봇타 숲으로 불리는 연구원을 위한 공간과 빛의 정원으로 불리는 공공을 위한 공간을 두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열린공간을 통하여 전시, 체험, 홍보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보안통제관리와 기능에 충실한 연구시설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사람과 로봇이 교감하는 역동적 공간연출

인근 소공원과 연계한 녹지 흐름을 내부 광장으로 유입한 로봇대학원과 기숙사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교수연구동, 강의실협동, 산학연구동으로 분리해 시설별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남측면 테라스 계획과 강의실 및 연구실의 전면배치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이버 가든, 사색의 정원(큐브십터) 등 체험의 성격을 가진 외부공간 조성으로 로봇과 교감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입체감 있는 스카이라인 및 매스계획으로 로봇의 역동성과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출처]

